

현대삼호 변전소 화재, 최악땐 복구 수개월... 조업 빨간불

전남지역 조선산업의 중추인 HD현대삼호가 변전소 화재로 조선소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조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주요 산업인 조선업계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닥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

29일 HD현대삼호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22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HD현대삼호 조선소 1호사 변전소(154kV)에서 불이 나 진화 중이다.

화재가 발생한 변전소는 현대삼호 조선소 내 33~34개 변전실이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메인 변전소다. 조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발전시설이 불에 타면서 조선소 내 전력 공급이 끊긴 상태다.

현대삼호 측은 통상 선주사 납기일보다 6개월 정도 공정을 앞당겨 진행해오고 있어 선박 인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삼호 근로자들은 전날부터 2주 동안 여름철 단체 휴가에 돌입해 이 기간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해당 변전소 시설을 복구하는 데는 최소 한달 이상 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업 차질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조선소 내 상당수 협력 업체들은 현재도 조업을 이어가고 있어 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휴가를 마친 근로자들의 복구 시점도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현대삼호 본사 소속 근로자는 4000여



29일 오전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HD현대삼호 내 1호사 변전소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전날 오후 11시22분께 발생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력 공급이 끊겨 당분간 조업 차질이 예상된다. /뉴스시스

조선소 전기 공급 끊겨... 복구에 최소 '한달 이상' 본사 4천명·협력업체 80개사 1만여명 '고용중추' 작년 매출 7조... 전남서부권 경제전반 파급 클 듯

명, 협력업체는 80여개사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 목포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조

업 기반이 미약한 전남 서남부권에서 조선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70.7%에 달한다.

지난해 매출액만 7조31억원에 이른다. 지난 4월 한달 서남부권 주요 조선업체 생산액이 8145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생산부터 수출, 고용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력이 상당하다.

현대삼호 관계자는 "공정을 앞당겨 진행 중이라 선박 인도에는 문제가 없다"며 "피해 시설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냉방기기 문어발식 멀티탭, 화재 부른다

에어컨은 최악... 광주 3년간 냉방기기 관련 화재 113건

광주지역에서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멀티콘센트(멀티탭) 과부하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지역에서는 총 113건의 냉방기기 관련 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과부하·접촉 불량과 같은 전기적 요인이 45.1%였다. 부주의의 25.7%, 기계적 요인 14.2%, 원인 미상 12.4% 순이었다.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에 발생한 냉방기기 관련 화재가 72건(64%)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멀티콘센트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여름철에는 높은 습도와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하나의 멀티콘센트에 다양한 가전기기 연결에 의한 과부하 화재가 매년 늘어나고 있

어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가 큰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벽면 단독 콘센트에 연결해야 한다. 하나의 멀티콘센트에 여러개의 플러그를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은 하지 않아야 한다. 또 KC마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정품 멀티콘센트를 이용하고 오래되거나 손상된 제품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김희철 119대응과장은 "냉방기기를 비롯한 여러 가전기기를 멀티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할 경우 과전류, 접촉 불량 등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며 "안전수칙을 지키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전원 차단 후 소화기로 진화하고, 불이 클 경우 즉시 대피해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국토부,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 포털 30일 시범운영

특별법령 및 생활지원금, 치유 휴직 지원 등 안내

정부가 12·29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피해자 지원 포털을 시범 운영한다. 피해지원 포털은 3개월간의 시범 운영기간 동안 유가족의 실제 사용 경험과 제안을 반영해 기능을 보완·개선한 후 오는 10월 중 정식 오픈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유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피해자 지원 포털(http://www.1229familysupport.kr)'을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 지원 포털은 피해자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령, 피해자 지원단, 민간 전문가 자문단의 주요

내용과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자문단에 대한 온라인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지원금(국토부)과 의료·심리치료 지원(보건복지부), 치유 휴직 지원(고용노동부), 법률상담(법무부) 등 관계 부처별 지원사항에 대한 주요내용, 신청절차, 준비서류 등을 통합 안내한다.

또한 유가족 총회 및 주요행사 등 정부의 피해지원 관련 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 및 활동 가이드를 제공한다.

특히 피해 지원사항 신청서류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회의록, 유관 기관 연락처 등 관련 자료도 받아볼 수 있다. /전민규 기자

폭우 사망, 1명 늘어 25명... 발견된 시신 1구 실종자로 확인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광주 복구에서 실종됐던 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폭염으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내린 집중호우로 2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지난 25일 광주 복구에서 발견된 시신 1구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실종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사망자가 1명 늘었다. 전날까지 총 1만1999명이 투입돼 남은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사망자는 경남 산청이 13명으로 가장

중대본, 폭염대처상황·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 27일 가축 2만1732마리 폐사... 온열질환자 97명

많았다. 이어 경기에서 7명(가평 5명·포천 1명·오산 1명), 충남에서 3명(서산 2명·당진 1명), 광주 복구에서 2명이 숨졌다. 실종자는 가평에서 2명, 산청에서 1명 발생했다. 수해 복구 작업은 뾰족더위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응급복구 대상 총 2만9천 건 중 67.6%(1만3530건)의 복구가 완료됐고, 6479건은 추진 중이다. 도로 등 공

공시설 1만649건 중 65.3%(6951건)의 복구가 마무리됐고, 주택 등 사유시설 9360건 중 70.3%(6579건)의 복구가 끝났다.

경남·충남 등 8개 시도의 663세대 1061명은 여전히 귀가하지 못했다. 522세대 860명은 학교나 마을회관 등에 마련된 임시주거시설에서 지내고, 141세대 201명은 친인척집 등에서 머물고 있다.

한편,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던 폭염

경보로 가축 폐사가 급증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7일 하루에만 2만 1732마리(돼지 601마리·가금류 2만1131마리)가 폐사했다. 양식장 어류는 24일 기준 2030마리가 폐사했다.

5월 20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누적 103만5859마리(돼지 5만1372마리·가금류 98만4487마리)가 폐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만5654마리)의 6.3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27일에는 온열질환자가 97명 발생했다.

행안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복어' 직접 요리해 먹은 베트남 선원들, 중독... 4명 '사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선원 A(40대)씨가 숨졌다. 나머지 선원인 20대 B(20대)·C(30대)·D(40대)씨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남 저녁 직접 복어를 손질해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어는 알과 내장, 껍질, 피 등에 맹독을 품고 있다.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

고 먹었을 경우 중독을 일으키거나 증세가 악화하면 숨질 수 있다.

복의 독은 열에 강해 조리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거쳐 조리해야 한다.

해군은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스시스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